

시 류 음

경 축 의 꽃 바 다 펴 셧 습 니 다

김 영 너

길림의 2월은 뜨겁습니다

그리움속에 밝아온 광명성절 아침
여기 길림옥문중학교
주석님동상앞에 서니
눈앞에 선히 어려웁니다
4년전 8월 이곳에 오시었던
아버이장군님의 모습이

아 산은 산마다 강은 강마다
주석님의 성스러운 항일혁명업적
뜨겁게 전하는 영광의 성지여
백두산 가까이에 사는 무한한 궁지
장군님 오셨던 그때처럼
가슴가득 차오른적 일찌기 없었습
니다

내가 선 바로 이 자리는 아님니까
조국에서 안고오신 꽃바구니
장군님 경건히 주석님께 드리시며
송엄히 동상을 우러르시던 곳은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버지장군님
우리 동포들의 가슴에 송고한 사명을
새겨주시며
태양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생각 많으셨겠습니까
항일빨찌산군복 그대로 입고계시는
주석님께 충정의 꽃 드리시던
장군님 침침에 뚫어오른 깊은 생각
이여

백두의 뚝을 안고 원수님 더 높이
받들라고
힘을 주고 정과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동북의 사연많은 항일전장을
그이 마음속으로 다 걸어보시며
주석님 헤쳐오신 피어린 자욱자욱에
삼가 놓아드린 경모의 꽃입니다

애국의 한마음 더 붉게 꽃피우렵니다
충정으로 불라고 맹세로 불라는 우리
가슴에
길림의 2월은 아 뜨겁습니다

내 마음 언제나 영광의 그 시각에

있을수 없어라
원수님을 몸가까이 뵈던
뜻깊은 청년대회 기념촬영장에서
재중동포들의 그리움 담아

그이께 꽃다발을 드리던 영광의 그
시각을

이역에서 온 청년대표들이라고

자신의 곁에 불러주신 원수님
지금도 꿈만같은 그날의 그 행운
행운의 그 시간은
짧았던지 길었던지...

먼곳에 사는 자식이어서
제일 가까이에 불러주신 사랑
드린것이 어찌 꽃다발이라고만
하랴
그이께 매혹된 뉘이었다
스스럼없이 맡기는 운명이였다

한품에 안아 부어주신 정

사 랑 의 품

을었습니다
자꾸만 솟구치는 눈물 겹잡지 못했
습니다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모습 TV로 뵈오며

매일찍 아버지를 잃은 나처럼
부모의 사랑을 잃은 고아들이건만
그들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제일이신 아버지를 모신
행복에 겨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란 부름 부르고싶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와 함께 손목 잡고 다니는

끝내 눈물을 터치게 한
다심하신 아버이의 그 사랑 잊을수
없어
내 마음은 언제나 영광의 그 시각에
광명성절 뜻깊게 경축할수록
더더욱 사무쳐오는 감격의 그 시각
이여

영원토록 그 시각을 소중히 간직
하고
장군님 유훈을 받들어가리라
오직 한분 원수님만 믿고 따르며
충정의 꽃 더 활짝 꽃피워가리라

품

아이들을 볼 때면
남몰래 눈물흘려온 나의 어린시절

그 시절 아버지 없는 서러움으로
눈물을 많이도 흘려본 나였기에
격정의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북받치는 감동 그리도 끈겼이였습니다

나이는 몇살이냐?
아픈데는 없느냐?
물어주시는 원수님 모습
어쩌면 그리도 다심하십니까
어쩌면 그리도 인자하십니까

《아버지!》
목청껏 부르며 철부지 아이들

원수님 품에 와락 달려가 안길 때
내 마음도 격정의 파도가 되어
원수님 품을 찾아 사품쳐 흘렸습니다

이역의 하늘에도
그 빛발은 언제나 찬란합니다

정녕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있
기에
사회주의 내 조국엔 봄빛이 파스하고

7천만 온 겨레가 운명을 의탁하며
아버이라 부르며 달려가 안기는 품
그 품은 아 그 품은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경 축 의 꽃 바 다 펴 셧 습 니 다

길림과 심양
단둥과 장춘
우리 동료 사는 곳 그 어디서나
경축의 꽃바다 펼쳐했습니다

그 빛발 우러르며 달려가 안기고
배푸시는 사랑에 목매여 눈물을 쏟던
감격의 그 나날들을
세월이 흐른다고 어찌 잊을수 있겠
습니까

광명성 찬란하여 영광떨쳐온
위대한 조국의 년대기들을
뜨거운 가슴속에
언제나 그리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체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 높은
모습
광명성 그 이름과 더불어 찬연히 빛
납니다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백두의 천철위인
광명성 그 빛발로 누리려 밝히려
사회주의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주시거니

이역에 사는 동포들의 가슴가슴을
신심과 용기로 뚫게 하고
애국의 열정으로 불태워준
아 광명성 그 찬연한 빛발이여

광명성 그 빛발 언제나 가슴에 안고
고마운 어머니조국 무궁토록 받들 마음
광명성절 이 아침
더욱 뜨겁습니다

길림과 심양
단둥과 장춘
충정으로 불라는 동포들의 마음
경축의 꽃바다로 펼쳐했습니다
(필자는 재중조선인정년연합회
위원장임)

2 월 의 봄 명 절 에 더 욱 뜨 거 워 진 마 음

은 겨레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
의 정을 안고 광명성절을 성
대히 경축하였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준
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조국과 겨레를 위해 온갖 시
련과 고생을 다 겪으시며 정
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
력으로 전진미담의 길을 헤
쳐오신 위대한 인간,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생애는 한몸이 그
대로 타고르는 불꽃이 되어
민족의 존엄과 행복,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모든것
을 장그리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아버이의
고귀한 한생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탄생
72돏경축 중앙보고대회, 제
18차 김정일화축전, 백두산
평영결의대회, 제23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
취거축전을 비롯하여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다채
로운 경축행사들은 그이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불멸하며
절세위인에 대한 겨레와 진
보적인류의 그리움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
해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아버지로 영원히 높이
받들며모시고 그이의 위업과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갈 애
국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
을 두고 심려하시며 하루빨
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
게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 온

만수대 창작사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기마동상을 찾은 김일성상
게판인이며 로력영웅인 오
영재선생의 아들 오설악
은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
의 운명과 존엄을 지켜주시
고 강성국가의 미래를 펼쳐
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
고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하
였다. 그는 아버지가 사람들
속에서 널리 애창되는 《조
선의 힘》, 《훤넉넉인 고향
집》, 《장군님식술》과 같
은 노래를 지을수 있는것은
그이의 위인상에 매혹된 녀
트의 분출이었다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군님의 위대성
을 칭송하는 인민들의 마음
담아 문필활동에 자신의 창
작적열정과 지혜를 다 바칠
결심을 피력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그이의 위업
을 받들어나가려는 각계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은 김정일화
축전장에도 차남쳤다. 재우
즈베끼스판 신 이리나동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국에 처음 왔
다. 50여년세월 이역땅에서
마음속에 그려본 조국을 방
문한 소감을 어떻게 표현해
야 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김정일화를 보면
서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
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분께서 얼마나 출중한분이
시면 외국의 원예업자가 자
기가 배시를 들여 육종한 새
품종의 화초에 그분의 존함
을 모서 세상에 내놓았겠
가. 김정일화는 세계적평화
로 꽃의 왕이다.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진귀한 꽃들을 놓

고 하는 화초전시회나 박람
회가 많지만 규모나 형식에
서 김정일화처럼 한가지 꽃
을 가지고 열리는 꽃축전
은 없다.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인것이다. 전장
을 돌아보는 남부로스 참관
자들의 얼굴에서 나는 령도자
를 모시고 받드는 조국동포들
의 신뢰와 경모의 정을 한껏
느낄수 있었다. 나도 그 숨결
에 호흡을 맞춰 우리 동포들
의 서리꽃에술단활동을 힘차
게 벌려 동포사회의 화복과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넋을
대대손손 이어가도록 하는데
담아 문필활동에 자신의 마
음을 굳게 가지게 됐다.》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하면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무
상의 행운을 마음속에 소중
히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파
라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을 위해 애국충정을 다할 열
의에 넘쳐있었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
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결
옴의양보다 없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구현하
며 그이의 업적을 끝없이 빛
내어나가도록 하시려는것은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이다. 장군님께서 뿌려놓으
신 만복의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무르익도록 하시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에 의해 전례
없는 건설의 번영기가 펼쳐
지고 마식령을 비롯한 온 나
라 곳곳에 조국번영, 인민사

랑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
후죽순처럼 일떠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새
로운 기적이 려이어 창조되고
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
국에 체류하면서 문수물들
이장과 옥류아동병원을 돌
아본 김 스베들라나 재우즈
베끼스판동포는 정말 회한하
다. 규모도 크고 형식도 놀
라울 정도다. 근로하는 사람
들을 위해 그렇게 훌륭한 물
놀이장을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하도록 하셨다는데 그분
의 인민사랑에 감동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옥류아동병원
을 돌아보면서는 발걸음을 땀
수 없었다. 한점한점의 모든
의료설비들과 기구들을 최상
의 수준으로 갖추고 아이들
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병
원의 의료상해력은 내가 처
음보는 꿈같은 일이었다. 민
족의 미래를 위해 기울이시
는 원수님의 후대사랑과 조
국의 인민적이며 대중적인
국가적시책과 배려에서 나
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체부로 실
감하게 됐다고 자신의 심정
을 터놓았다.

은 민족이 뜻깊게 경축한
광명성절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월의 끝까지 천세만세 높
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되
고 번영하는 강성국가건설
의 그날을 앞당겨오려는 민
족의 다함없는 경모와 절대
적인 신뢰심이 뜨겁게 굽이
쳐흐른 민족최대의 명절, 영
원한 2월의 봄명절이라는것
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리 설

눈 보 라 강 행 군 길 은 말 한 나

이해의 2월은 레닌
에 없이 푸근하다.
대지를 에이던 차
디찬 눈보라가 이제
는 사라지고 강산에
는 눈석이 시작되
는가싶다. 부드럽고
살진 흙속에선 봄물
의 작은 일새들이
머리를 쳐들 준비를
한다. 봄이 태동하
고있는것이다.
하긴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잊지 못
할 추억으로 소중
히 간직된 눈보라
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
신 눈보라강행군길
에 대한 생각이다.

아마도 장군님처럼
인생의 시작도 끝
도 눈보라속에서 보
내신 위인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이께서는 백두
산의 눈보라를 추복
의 꽃보라로 맞으시
며 탄생하시었고 그
실한풍속에서 첫걸
음을마루 세하셨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내리신
그날로부터 장군님께서 굴
합없이 헤치신것도 눈보라
치는 전진길이었고 그이의
야전차자욱이 려려히 새겨
진 곳도 철령과 오성산, 강
계와 함남의 얼음진 험한 길
들이었다.

자신께서는 눈덮인 백두산
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겨울이 마음에 든다고, 사람
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겠
지만 자신께서는 겨울이 좋

다고 하시며 멀고 험한 눈보
라강행군길을 웃으며 헤쳐가
신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한평생 헤치신
눈보라강행군길은 조국과 인
민을 위한 끝없는 헌신의 길
이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강
추위속에 어느 한 인민군부
대를 찾으신적이 있었다.

그이를 맞이하게 된 군인
들은 대오를 짓고 정렬하였
다.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
가 눈서리를 한가득 뒤집어
쓰내 나타나자 군부대지휘관
은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
려고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
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열
마후에 군인들은 펴낸 강추
위에 문이 얼어붙어 움푹 안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길
에 대해 전하는 한편의 일
화이다.

훤넉이 내릴 때마다 그이
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장군님 찬넉길
걸지 마시라라는 노래를 마
음속으로 불렀건만 그이께서
는 인민을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주시고 한생토록 눈보라
를 맞으시며 현지지도의 길
에 계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였던 주제100(2011)년 12월
8일 장군님께서는 열차를 타
시고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그날 길에는 찬바람 몰아
치는 눈발속을 뚫고 함흥역
에 멈춰섰다. 새벽부터 함경
남도지방에는 수십cm에 달하
는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
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바람
이 세차게 불었다.

소리없이 걸어가는 그날밤
장군님께서는 함흥시민들의
단잠을 깨울세라 열차에서
한밤을 지새우시고 이를날
시인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
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에서 기록된 성과를 두고 못
내 만족해하시며 노동자들
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
고 떠나실 때에는 매년에 다
시 오겠다는 약속도 남기시
였다.

결쌍인 정신육체적파로
로 몹시 불편하신 몸이여서
좀 쉬시기를 아뢰이는 일군
들에게 난 아직 가야 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야 온 나라에
승리의 불꽃이 타번진다고 하
시며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장군님이시다.

이렇게 이어진 그이의 현
지도길이었었고 한순간도 멈
춤없이 이어진 눈보라강행군
길이었다.

실로 장군님의 한평생은
봄을 불러 태동하는 눈보라
처럼 이 땅에 밝아올 강성번
영의 봄을 위하여 불꽃이 사
신 열렬한 애국자의 고귀한
한생이었고 자욱자욱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걸고걸으신 위대한 아버이의
고결한 한생이었다.

그이의 눈보라강행군길은
말한다.

봄이 오면 자연의 봄은
누가 없여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헌신으로 헤
쳐가신 눈보라는 세월이 흐
를수록 그이의 불멸의 업적
을 길이 전하며 인민의 마
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
이라고.

본사기자 김 강 철

《 자 애 로 운 그 모 습 이 더 욱 그 립 습 니 다 ! 》

제 18 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본 해외 동 포 들 과 외 국 인 들 의 반 향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
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정일화
축전이 14일부터 20일까지 대
동강반에 자리잡은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
었다.

아래에 축전장을 돌아본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반
향을 소개한다.

《김정일화는 인류세계의
인민들 마음속에 만발하는
꽃입니다.

은 나라 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흠모
하는 불같은 정열이며 용광
로처럼 솟아나는 불꽃과 같
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도
조국인민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조국부강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적은 힘
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김정일화는 온 세상에 만
발할것입니다!》(리영호 단
둥시 성민무역유한공사 총
사장)

《축전에 참가하면 할수록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더 그림습니다. 장군님을 그
리는 마음을 힘으로 바꾸어
김정은원수님을 끝까지 따
르며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
들이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에
모든 힘을 이바지하도록 하
겠습니다.》(최룡호 연변파
학기술대학 부총장 겸 평양
과학기술대학 부총장)

《나와 나의 가족은 오늘
주조 무관단성원들과 함께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
습니다.

축전, 광명성절에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을 때
마다 나는 위대한 대원수님
들에 대한 조선군대와 인민
의 절절한 그리움과 그분들
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모습을 세삼
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나는
조선군대와 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중심으로 바랍니다.》
(한산 레자 허씨이니 주조
무관단 단장 이란이슬람공화
국대사관 무관)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인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그리워
합니다.》(류홍재 주조 중화
인민공화국 대사)

본사기자



제 18 차 김 정 일 화 축 전 장 을 돌 아 보 는 해 외 동 포 들

